

경제

이코노 & 비즈 피플

임형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소기업·소상공인에 ‘햇살론’ 확대”

재단 출연금 안정적 확보·광주신보 홍보 역할

튼튼한 보증지원으로 서민경제 버팀목 될 것

지난 1996년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서발급을 통해 자금용역을 지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신용보증전문기관이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제6대 광주신용보증재단 임형진 이사장에게 향후 재단 운영방안 등을 들어봤다.

▲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최근 지역 경제가 어떤가

- 서민경제의 큰 축 중 하나는 자영업자와 같은 소상공인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72만명, 전체 취업자의 31.8%로 추산되는데 이는 OECD국가평균 16.1%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취임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둘러본 결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같은 대규모기업자본에 밀려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이 많았다. 은행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다수였다.

▲광주신보의 역할과 성과는

- 최근처럼 경기가 침체된 상황은 서민층의 경제력을 약화시킨다. 경제력 약화는 곧 실질소득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채무를 상환치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고 또다시 경제력 약화라는 악순환고리로 이어진다. 광주신보는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설립 이후 지난 8월 기준, 우리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 4만7200여업체에 대해 총 1조 191억원의 보증공급을 했고, 2만 5000여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현재 광주신보가 지원중인 보증지원제도는

-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보증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책으로는 ‘햇살론’을 들 수



있다.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층의 사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전용대출 상품으로 실시된 후 지역 내 사업자와 근로자 9800여명에 대해 총 760억원이 지원됐다. 또 영세소매점포의 시설개선을 돕는 ‘나들가게특례보증’, 광주시와 새마을금고의 출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희망드림론’도 있다.

는 대외홍보가 중요하다. 출연금은 재단의 주요업무인 보증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출연금의 안정적인 확보는 지속적 보증을 위한 토대다. 재단의 출연금 총액은 736억원으로 이중 광주시가 가장 많은 306억원을 출연했다.

또 그간의 보증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단을 모르는 시민이 많다. 직원들이 직접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회 등 각자각소를 방문해 자영업자의 든든한 금융동반자임을 널리 알리겠다.

▲향후 운영방안은

-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서 경기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게 바로 자영업자 등 서민층이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는 곧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광주신보는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여기에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보증이후의 고객지원도 포함한다. 광주시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민을 위한 신용보증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포스코, 니켈 생산능력 2배 늘린다

SNNC 연간 5만4천톤 ... 자금률 60%로 상향

포스코(회장 정준양)가 니켈제련 계열사의 생산능력을 배로 늘려 스테인리스 사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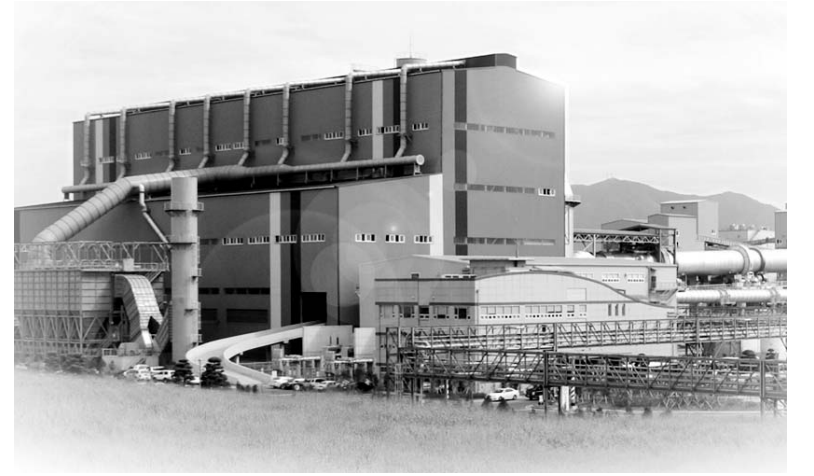
포스코는 30일 뉴칼레도니아 누메아(Noumea)에서 니켈제련사업 파트너사인 SMS사와 니켈제련 합작사인 SNNC의 연간 니켈 생산능력을 3만에서 5만4000t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니켈제련 협력사인 SNNC는 다음 달 광양에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4년에 2기 제련설비를 완공할 예정이다.

총투자비 4800억원은 포스코 도움 없이 자체 유보금 등으로 전액 충당할 계획이다. SNNC는 2006년 5월 포스코와 SMSP사의 합작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의 니켈 제련 회사로, 뉴칼레도니아의 광산개발회사인 NMC로부터 30년 동안 생산에 필요한 니켈 광을 공급받도록 돼있다.

포스코는 이번 SNNC의 니켈 제련 설비 증설과 제품구성비 조절로 니켈 자금률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려 스테인리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니켈은 스테인리스 제품원가의 약 60%를 차지하는 필수 원료이나 최근 공급사의 대형화·과점화, 자원보유



포스코 SNNC 공장 전경

국의 자원보호주의 확산,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자금의 유입 등으로 가격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니켈의 경제적·안정적 확보가 스테인리스 경쟁력 제고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포스코는 세계 2위권인 연산 300만t의 스테인리스 조강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장가항호항철수강·청도항철수강, 베트남의 포스코 VST, 터키의 포스코 ASSAN TST 등 글로벌 주요 권역에 고부가가치 스테인리스 생산·판매 체계를 구축해왔다.

최근에는 동남아 최대이자 태국 유

일의 스테인리스 냉연사인 타이녹스를 인수해 부가가치가 높은 냉연 생산비율을 높여 동남아 시장의 주도권을 공고히 했다.

포스코는 2014년 까지 포항 스테인리스 400계 생산설비 증설, 베트남 포스코VST냉연 증설, 터키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건설 등을 마무리해 냉연비율 80% 수준으로 높이고, 스테인리스 주원료인 니켈 자금률을 60%까지 올리게 되면, 세계 최고수준의 원료 경쟁력 및 생산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재무본부=박영진기자 py4079@

30대 그룹 올 12만4000명 신규 채용

30대 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2만4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고졸 인력도 작년 대비 13% 증가한 3만5000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정오 대 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생발전’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경련이 30대 그룹의 올해 채용계획 및 상반기 채용실적을 파악한 결과 30대 그룹은 올 상반기 6만8000명을 채용했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작년(11만명)에 비해 12.7% 늘어난 12만400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졸 출신은 3만5000명을 새

로 뽑기로 했으며, 상반기에 이미 계획의 52.8%인 1만8000명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금융 400명 채용

광주은행 30명 포함

우리금융그룹은 광주은행 30명을 비롯한 2011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사원 400명을 그룹 공동으로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그룹과 각 계열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계열사별로는 광주은행 30명, 우리은행 250명, 경남은행 50명 등이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광주신세계 16주년 패션쇼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2층 동산아트홀에서 개최한 개점 16주년 기념 ‘F/W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올 가을 유행할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패션쇼 등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지역 이주여성들을 돕는데 쓰일 계획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화인코리아 회생절차 개시 요청 건의서 제출

전남도의회, 광주고법에 “정상화 충분히 가능”

전남도의회가 파산선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3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옥기(나주 2·민주) 의원 등 도의원 51명은 파산선고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판매업체인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도원의회가 제출한 건의서는 화인코리아가 조류인플루엔자 파동 등으로 경영악화를 겪어오다 지난해 12월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 직원이 단합해 영업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회생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회생절차 기간에 거둔 100여억원의 영업이익과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을 동원하면 담보채권을 상환하고 충분히 영업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 파산한다면 600명의 종업원과 300여 사육농가, 500여 협력업체 등이 한꺼번에 파국을 맞을 수 있다”면서 “기업 경영 정상화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회생의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인코리아는 경북 성주 출신의 주진우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식품 대기업 사조그룹에서 할값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회사 임직원 명의로 대대적인 항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Financial data box showing KOSPI index at 1880.11 (+36.29), KOSDAQ index at 493.44 (+4.95), and other market indicators.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Hameung Dynasty CC. Includes title '합평다이너스티CC 사원모집', job details for waiters and bartende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ameung Dynasty CC.

Public notice from Gwangju District Court regarding court judgments. Title: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Lists case numbers, parties, and court decisions.